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녹지조경학과 32163977 임현서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정말 존재할까? 요즘 세상에서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 같다. 최근 뉴스를 보면 채용 비리 관련 보도가 쏟아져 나오고 개천에서 용이 안난지는 오래됐다. 그래서 책을 읽기 전에는 없다고 확신했다. 그러나 세상이 변하면서 돈으로 해결하지 못했던 것들을 돈으로 사는 사례를 읽으면서 도덕적 가치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

사회가 자본주의로 변하면서 시장과 시장가치가 원래는 속하지 않았던 삶의 영역으로 팽창하면서 불평등과 부패가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돈으로 살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별하여 올바른 가치를 판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여기서 내가 경험했던 돈으로 산 사례가 등장했다. 바로 새치기이다. 작년에 일본 유니버셜스튜디오에 놀러갔을 때 여행이기 때문에 기다리기 너무 싫고 힘들어서 우선권을 구입했었다. 한국 이였다면 절대 내지 않았을 금액(한화로 약 7만원)이였지만 바로 입장한다는 특권이 더 많은 곳을 둘러보고 여행할 기회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돌이켜 생각해보면 이런 것에서 불평등이 생겨나는 것 같다. 가난한 부모들은 아이들과 놀이기구를 3개정도 탄다면, 우선권을 구입한 부자 부모는 같은 시간에 2배정도를 더 탈 수 있게 하기 때문에다. 이렇다면 자유이용권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

또 바다 코끼리 사냥 사례가 굉장히 인상깊었다. 바다 코끼리가 멸종 위기 동물로 지정되면서, 바다 코끼리를 사냥하며 생계를 이어가던 이누이트 족에게만 사냥자격을 줬다. 이누이트 족은 사냥권을 다른 사람에게 팔고 자신들은 구매자에게 사냥방법을 알려주고 안내(관광)로 수입을 창출하겠다고 국가에 요구했다. 요구는 받아들여졌고 돈이 많은 부자들이 바다코끼리를 사냥하고 있다. 이것 또한 돈으로 바다코끼리 사냥 경험을 사는 경우다. 이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비판하고 있고 나 또한 불공정하다고 느껴졌다. 환경만 망가지는 결과를 초래하는 불공정한 거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부분은 돈으로 거래 할 수 있지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거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도덕에 관한 얘기는 나 조차도 요즘세상에 맞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인간은 도덕(양심)을 지니고 있다. 스위스의 핵 폐기장 사례를 통해 느낄 수 있었다. 스위스에서 핵 폐기장을 설립하기로 한 지역의 주민들은 누군가는 핵 폐기물을 감당해야 한다는 시민정신으로 폐기장 설립에 절반 이상(55%)찬성 했었다. 그런데 주민들에게 폐기장을 설립하는 대신 돈을 지급한다고 하자 25%로 찬성비율이 감소했다. 시민들의 의견에 따르면 나는 돈을 원한 것이 아니고 받을 생각이 없다고 했다. 돈이 시민의식을 쇠퇴 시킨 것이다.

이러한 사례를 보면서 재화가 무조건적인 해결방법이 될 수는 없고, 도덕적 기준을 거래에 대입해야 한다고 느꼈다. 세상이 변화하면서 인간성은 감소하고 돈이 최고인 사회에 살고 있지만 그 사회는 결국 우리가 만든 것이고 바꿀 수 있는 것 또한 우리이기 때문이다.